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척도 개발*

Development of a Consumption Self-regulation Scale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교수 남수정**

Research Institution for Human Life Sciences, In Ha University

Research Fellow : Nam, Su-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to measure consumption self-regulation. A preliminary 38-item scale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e thousand-twelve consumer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A series of tests, such as test-retest, item-to-total correlation,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and a final scale comprising 30 items was then constructed. The consumption self-regulation scale consisted of four factors: ① impulse control, ② gratification delay, ③ self-reliance, and ④ self-management.

△주요어(Key Words) : 자기조절(self-regulation), 충동억제(impulse control), 만족지연(gratification delay), 자기확신(self-reliance), 자기관리 (self-management).

I. 문제제기

인간은 소비자로서 태어나 소비자로서 살아가다 심지어 사망한 후에도 끊임없이 소비를 야기 시킨다.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혹은 사용이 배제된 순간이란 극히 드물다. 이미 소비란 공기와도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삶에서 소비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더 이상 부연의 여지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정교화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은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을 오히려 객체인 상품에 예속시키는 아이러니한 역전현상(descentring)을 가져오는 등 소비의 증가와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과 불만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과거 소비에 관한 연구의 주된 관점은 경제학적 시각에서 시작되어 이론을 검증하고 영향변수들을 찾는 데에 몰입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가 매우 합리적 존재일 뿐 아니라 시장 또한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이 전제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도 시장도 객관적, 주관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일반화된 결과들로 인해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소비자의 구체적인 삶의 지향점을 찾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인간의 삶 자체를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소비방법이 무엇인지 모색되어야 한다.

인간의 만족이란 수세기 동안 걸쳐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만족에 대해 고민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만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 전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갖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쓴 바 있다. 만약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것이라면 전통적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075-B00008).

** 주 저 자 : 남수정 (E-mail : bluechrise@freechal.com)

인 경제이론과는 달리 소비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박명희, 2006).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은 과소비 사회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개인들이 갈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는데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소비사회의 유혹은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지만 알파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Alan, T. U., 1991, 구자건 역, 1994).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Maslow는 인간의 욕망에서 찾고 있다. Maslow는 인간에게 있어 완전한 욕구충족이란 있을 수 없으며,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로 상향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에게 있어서 구매를 향한 욕구는 지속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인간의 만족이란 스스로가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의식을 통제하다는 것은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sikszentmihalyi(2000)는 소비가 주는 비용과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인들의 소비행위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의 궁극적 만족과 행복은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통제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진정한 만족에 대해 냉철히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안분지족(安分知足)할 수 있는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소비자학에서는 기존의 효율적인 소비와 소비 만족의 극대화 같은 소비를 촉진하는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소비에서 발생하는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떻게 소비의 보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여 삶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작업이 필요 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욕구를 조절하고 자신의 소비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고 보고 이러한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며 자기조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대한 개념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인간행동과 관련된 행동과학분야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학문분야에서 자기조절이 자기통제(self-control)와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에 대한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의 의미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절(regulation)과 통제(control)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조절은 '사물의 상태를 알맞게 조정하거나 균형이 잘 잡혀 어울리도록 함'으로 정의된 반면 통제의 경우 '일정한 방침에 따라 제한하거나 제약함'을 의미한다(<http://www.naver.com>). 결국 조절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는 일련의 행위인 반면 통제는 어떤 규칙 하에 제한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어진다.

자기조절과 자기통제는 많은 문헌들에서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Kanfer, 1973; Mahoney, 1974; Bandura, 1977; Leventhal et al., 1984; Rosenbaum, 1990) Kanfer와 Karoly(1972)의 자기조절모형(self-regulation model)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적응과 인지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행동 조절영역의 한쪽은 자동적인 조절과정에 의한 생리적 과정인 알파조절(α -regulation)과정이고 다른 한쪽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통제 하에 있는 자기통제 반응으로서 베타조절(β -regulation)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구분하였다.

Rosenbaum(1990)도 자기조절모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과 같이 이미 잘 정립되어 있어 인지적 작용이 최소한도로 개입되는 행위를 자동축(automatic pole)이라고 하였으며,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제반응을 통제축(controlled pole)이라고 구분하여 자기조절을 자기통제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일련의 자기조절 과정 속에서 인지적이고 자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위 행동은 자기통제로, 자기통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기조절 과정에 대한 이론을 자기조절모형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Kopp(1982) 및 Brownell 등(1997)의 경우 자기조절을 순응하기, 환경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고 멈추기, 행위의 강도와 빈도, 지속시간을 조정하기, 원하는 목적을 향해 행위를 지연하기 등 행동, 주의, 각성, 그리고 정서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행동과 정서를 억제하는 능력을 자기조절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구미옥, 1992; 박영임, 1994; 이정란·양옥승, 2003; Jones, 1989; Wing et al., 1986)에서도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자기조절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의 개념을 구분하는 연구들의 공통점은 자기조절을 자기통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면서 더 큰 개념인 “의식”과 연결시킨다(Brownell et al., 1977). 의식이란 정신활동에 대한 자각 또는 의도적 통제를 뜻하므로 자신의 사고에 대한 사고로서 반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조절적 사고의 의미를 가진다(양옥승, 1993). 따라서 자기조절은 자기통제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을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통제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인지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조절에 대한 학문별 연구동향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기조절은 주로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학문분야인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소비자학에서는 직접적인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조절과 관련하여 충동구매 및 자기조절에 의한 의사결정모델에 대한 관심 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소비자학 분야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심리학

심리학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간발달과정에서 자기조절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아기는 자기조절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양옥승, 1993, 1994), 자기조절에서 의미 있는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자기조절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 정서, 인지 발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면서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로 간주된다(Brosnan, 2000; Brownell et al., 1997; Kopp, 1982; Perry, 2001).

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의 개념보다는 자기통제의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Kendall과 Wilcox(1979)의 연구로 이들은 자기통제가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인지적 요인으로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사려 깊게 계획하는 능력, 평가능력 등이 포함되며 행동적 요인으로는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이 포함된다

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지적으로 무시되어야 할 행동을 억제하거나 또는 인지적으로 선택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자기통제행동이라고 규정하여 자기통제의 개념을 자기조절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umphrey(1982)는 인지적 자기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동의 인지적 자기통제를 계획하고 평가하고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자기통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인지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Kim과 Beody(2001)는 자기통제를 자신의 행위, 사고, 감정으로 사회적, 물리적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 적응적이고 융통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을 좀더 엄격하게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Bodrova와 Leong(1996)은 자기조절을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잡한 인지적 조작을 수행하는 능력과 연결되며 고등정신과정이라고 보았다. Diaz 등(1990) 또한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발생학적 인식론자인 Vygotsky(1978)의 입장에서 자기조절은 고등정신의 발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즉 자기통제는 내면화된 양육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는 수준인 반면에 자기조절은 내면화된 명령보다는 자기가 형성한 계획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기통제와 자기조절 모두 외적으로 보기에는 ‘자기’ 즉 유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통제는 완전한 ‘자기’가 아닌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결국 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을 인간발달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 성공적인 사회화 및 성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사회학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에서도 주로 자기조절의 개념보다는 자기통제의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자기통제력 상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비행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low self-control theory”이다. 낮은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대체로 자기통제력이 범죄행위 및 범죄유사행위의 주요한 예측인자로 간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들로 부터 자기통제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확인한 바 있다(고정자, 2005; 민수홍, 2005; Chapple, 2005; Costello et al., 2006; Shiri et al., 2000; Tittle et al., 2004; Vazsonyi et al., 2001).

낮은 자기통제이론은 고전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어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손쉽게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거나 인간이 갖게 된 분노나 좌절감을 그 자리에서 해소시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나 개인차원의 자기통제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의 핵심을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때와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무시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결국,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here and now)"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이론은 범죄행위 이외에도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범죄 유사행위(analogous behaviors)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기본적인 6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충동성으로 범죄나 범죄유사행위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즉각적인 보답을 제공하기에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 및 범죄유사행위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둘째, 단순성으로 범죄나 범죄유사행위는 욕망을 추구하는데 있어 쉽고 단순하기에 낮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한 일을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근면, 지속성 등이 부족하게 된다. 셋째, 위험추구성으로 범죄와 범죄유사행위들은 흥미롭고 위험하며 스릴감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을 추구함으로써 만족하게 된다. 넷째, 신체적인 활동성으로 범죄 등은 기술이나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언어적 특성, 지식추구, 정신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쉽게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높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다 신체적이고 활동적이며 모험을 좋아한다. 다섯째, 자기중심성으로

낮은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여섯째, 분노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갈등에 대해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짐으로써 남들보다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low self-control"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민수홍, 1996), 중고등학생(고정자, 2005; 민수홍, 1998),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청소년(김두섭·민수홍, 1996)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3) 교육학

교육학에서는 자기조절이론을 학습방법에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고안된 개념이다.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학습이 외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 효과적인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학습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심리학과 교육학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학습현상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심리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연구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학습의 과정, 내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기 위해 학습의 과정에 집중하였던 심리학 연구와는 반대로, 교육학에서는 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학습결과에 치중하던 연구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80년대 동기에 대한 사회인지이론이 급부상하면서 자아효능감, 귀인, 기대에 대한 연구가 속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심리학 분야에서 Bandura, Thoresen과 Mahoney 등에 의해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응용 연구가 이루어졌다(Schunk, 1989). 효과적인 학습의 요인을 학습자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대신하여 자신이 학습에 얼마나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Zimmerman 등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연구자들이 1986년 처음으로 "Contemporary Educational Research"라는 학술잡지를 통해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면

서 자기조절학습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홍기철, 1994; Schunk, 1989). Zimmerman 등(1986)이 자기조절학습을 메타 인지적으로,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 촉진자라는 견해를 강조한 이후, Shunk과 Zimmerman(1994), Pintrich 등(1993), Winne(1995)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Ames와 Archer(1988)도 자기조절학습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효능감, 흥미, 교육환경 등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학습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를 상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 기능과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찍이 Weinert 등(1987)이 지적하였듯이 자기조절학습은 범위가 너무 넓어 한마디로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조절학습을 다루었던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기반과 관심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자기조절학습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학습에는 자기조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견해는 일치하고 있으나 자기조절학습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4) 소비자학

소비자학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조절의 구성요인인 충동성, 유혹저항, 만족지연, 검약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 중 하나는 Hoch와 Loewenstein(1991)의 연구로 이들은 소비자의 자기통제를 시간불일치적인 선호(time-inconsistent preferences)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자기통제는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목표와 즉각적인 욕구 사이의 조절로 결국 욕구(desire)와 자제력(willpower)의 관계로 표현되며 즉각적인 욕구를 자제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자기통제로 간주하였다. 또한 Bagozzi 등(199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쿠폰사용을 설명함에 있어 Kuhl(1982)의 행동지향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하여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동지향적(state-oriented)이라면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인 것으로 밝히

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학에서 자기조절과 관련되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충동성 및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로 Piron(1991)은 약 50년간 진행되어온 충동구매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충동구매 개념의 발달과정을 3단계로 정리하였으며 이들의 개념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4단계의 충동구매 개념의 발달과정을 <표 1>과 같이 제안하였다.

또한 Rook과 Fisher(1995)는 구매충동성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충동구매의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를 통해 충동구매의 척도를 개발한 바 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리대용 등(1997)과 양윤과 이채희(2000)의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기조절과 관련하여 소비자학에서 새롭게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자기조절 의사결정 모형(self-regulation model of decision making: SRMDM)으로 이 SRMDM은 자기조절을 잘 하는 의사결정자는 적응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라고(Byrness, 1998) 할 수 있다. 자기조절을 잘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적응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제한점, 편향 및 개인적 성향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대안을 생성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며 목표지향적인 선택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과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Schunk & Zimmerman, 1994)는 자기조절이론의 주요 아이디어와 일관된 것이다. 이런 통제감은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비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이해정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촉진되고 이런 변화는 차례로 의사결정에서 오류를 이끄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승규(2005)는 의사결정의 자기조절모형(Miller & Byrness, 2001)의 기본개념들을 소비생활에 접목시킴으로써 소비자 자기조절모형(consumer self-regulation model: CSRМ)을 제안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자기조절모형(SRMDM)에서 자기조절을 잘 하는 의사결정자는 적응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판단

<표 1> Piron의 충동구매 개념 발달과정 분류

분류	내용
분류 I	충동구매=비계획구매
분류 II	충동구매=비계획구매+자극에 노출
분류 III	충동구매=패락적으로 복잡한 경험
분류 IV	충동구매=비계획구매+자극노출+즉각적인 시간과 장소+정서적/인지적 반응

<출처 : 양윤 · 이채희(2000).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1(2), 137-168., 재구성>

과 선택을 내린다는 것으로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조절을 잘하는 의사결정자가 소비생활에서도 구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험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소비자학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조절의 구성요인인 만족지연, 충동성, 자기관리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Hoch와 Loewenstein(1991)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을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욕구와 자제력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Piron(1991)의 경우는 자기조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조절의 중요한 구성요인 중 하나인 충동성의 개념을 심층적인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자기조절 모형(SEMDM)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응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기조절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자기관리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각 학문분야에서 학문적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자기조절에 대한 구성요인의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발달의 중요기제로, 사회학에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교육학에서는 학습전략 중 하나로 자기조절의 중요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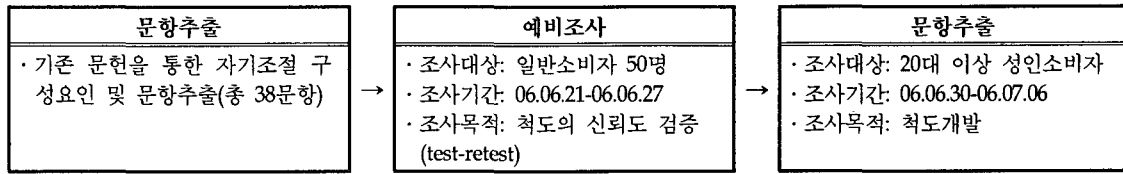
학문분야에서 제시한 자기조절의 구성요인을 통합하여 소비자학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충동성, 만족지연, 그리고 자기확신, 자기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결국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자기통제와 구분하여 자기통제 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자기통제를 하위의 구성요인으로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점검(self-monitoring)을 하위 구성요인으로 포함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영역을 정리해 보면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으로는 충동억제, 유혹저항, 만족지연 등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으로 자기확신과 자기관리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중 유혹저항과 만족지연의 경우 그 개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유혹저항을 만족지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자기통제(self-control)와 자기점검(self-monitoring)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기조절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욕구를 조절하고 자신의 소비생활에 주도권을 가지며 어떠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절히 자신의 의지대로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하는 능력으로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의 구성요인을 포함한다. 자기통제는 소비자의 목표를 위해 내·외부적으로 발

<표 2> 자기조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학자	학문 분야	자기통제 (self-control)		자기점검 (self-monitoring)		
		충동억제 (impulse control)	만족지연 (delay of gratification)	자기확신 (self-reliance)	자기관리 (self-management)	
Kendall & Wilcox(1979)	심리학			●	●	
Mischel & Mischel(1983)			●			
Kanfer & Gaelic (1991)			●			
Kokanska et al.(1996,1997)		●				
Brownell et al. (1997)		●	●			
Fang & Cox(1999)		●	●	●	●	
Rver et al. (1999)		●				
Sethi et al.(2000)				●	●	
신민희(1998)				●	●	
강기숙 · 이경님(2001)				●		
이정란 · 양옥승(2003)		●		●	●	
Gottfredson & Hirschi(1990)		사회학	●	●		
Zimmerman & Martinez-Pons(1986)		교육학			●	
Weinstein et al.r(1987)				●		
Miller et al.(1993)	●					
Garcia & Apintrich(1994)	●			●		
Betliner & Calfee(1996)				●		
Hoch & Loewenstein(1991)	소비자학		●			
Piron(1991)		●				
Byrness(1998)				●	●	



<그림 1> 조사절차

생하는 소비에 대한 요구를 내면화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자기점검은 소비자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소비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하고 융통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으로 자기점검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략을 산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척도(Self-Regulation Scale in Consumption: SRSC)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문항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에 대해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과 더불어 소비자학에서 연구된 자기조절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소비와 관련된 자기조절 개념과 구성요인을 체계화 한 후, 각각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된 문항은 소비자학 전문가 5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최종 38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1주일 간격으로 재조사(test-re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본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분석(item-to-total correlation), 크론바흐의 신뢰도, 요인분석 등을 통해 최종척도를 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척도구성을 위해 탐색적인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 문항분석(item-to-total correlation),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5.0을 이용하여 확인적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자기조절에 대한 최종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7일까지 1주 간격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2006년 6월 30일부터 2006년 7월 6일까지 전문 인터넷 리서치 회사인 inr(www.inr.co.kr)을 통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7일간의 본조사 기간 동안 총 1,96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750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검증데이터시스템을 통한 중복응답 및 응답 로드타임을 적용하여 199명을 추가로 제외한 후 최종 1,012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인터넷 서베이 업체의 패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직업별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1,012)

변인	평균(S.D.)/빈도(%)
연령	31.37(7.91)세
성별	남 466(46.0)명 녀 546(54.0)명
교육년수	15.29(2.15)년
직업	전문직 105(10.4)명 사무직 356(35.2)명 기술직 82(8.1)명 판매/서비스 48(4.7)명 농/임/수산업 1(1)명 자영업 64(6.3)명 주부 125(12.4)명 학생 152(15.0)명 기타 56(5.5)명 무직 23(2.3)명
주관적 경제적 수준	하하 2(2)명 하상 18(1.8)명 중하 232(22.9)명 중상 524(51.8)명 상하 175(17.3)명 상상 61(6.0)명
총 소득액	327.48(182.57)만원
총 지출액	203.51(124.61)만원
총 저축액	104.25(92.64)만원

IV. 연구결과

1.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도구성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문헌조사를 통해 충동억제 13문항, 만족지연 4문항, 자기확신 8문항, 자기관리 13문항을 추출하여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소비자학 전문가 5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은 후 이를 설문지화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방식(test-retest)에 의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문항분석을 실시한 후 이중 부적합

한 8개의 문항을 제외한 최종 30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조사법에 의해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0.6 미만인 항목은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1차적으로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문항 분석(item-to-total correlation)을 통해 각 요인과 항목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역시 0.6미만인 항목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첫 번째 단계에서 1번, 18번, 26번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5번, 11번, 22번, 24번, 31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척도의 구성과 삭제된 문항

변인		1단계: test-retest	2단계: 문항분석	비고	
자기통제	충동억제*	1. "지금 당장 해라"라는 말은 내가 물건을 사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다	.32	-	삭제
		2. 나는 종종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산다.	.72	.75	
		3. 나는 상품을 보자마자 사는 것을 결심한다.	.78	.69	
		4. 마음에 들면 일단 물건부터 사고 본다.	.89	.70	
		5. 나는 순간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을 때가 있다.	.72	.53	삭제
		6.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구매 할 때가 있다.	.70	.77	
		7. 때때로 내가 산 물건이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78	.62	
		8. 나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물건을 산다.	.76	.80	
		9.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79	.80	
		10. 사람들이 나에게 충동적이고 말 할 때가 있다.	.80	.45	
		11. 나는 가끔 구매하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해 볼 살걸....." 하고 후회해 본적이 있다.	.71	.54	삭제
		12.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재미있거나 흥미로워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71	.70	
		13. 나는 안전보다는 모험과 흥미로운 것에 관심이 더 많다.	.70	.68	
만족지연		14. 나는 구매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더 즐겁다	.79	.62	
		15.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구매를 포기할 수 있다.	.76	.62	
		16.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80	.63	
		17. 정기적으로 저축한다	.89	.63	
자기확신		18. 계획한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52	-	삭제
		19.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71	.70	
		20.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76	.63	
		21. 모든 부분이 확실할 때 의사결정을 내린다	.80	.68	
		22. 의사결정을 내릴 때 꼭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73	.15	삭제
		23. 내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 결과에 자신이 있다.	.80	.69	
		24. 내가 한번 결정한 일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확신한다.	.81	.69	
		25.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나는 매우 신중하다	.76	.52	삭제
자기감독	자기관리	26.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행동하는 편이다	.77	.70	
		27. 자신이 결정한 것을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는 편이다	.46	-	삭제
		28.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계획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편이다	.72	.76	
		29. 구매해야 할 물건이 있을 경우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 편이다	.71	.73	
		30. 일을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78	.77	
		31.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71	.54	삭제
		32.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 한다	.73	.69	
		33. 나는 돈을 쓰는 데에 나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75	.63	
		34. 나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이다	.76	.73	
		35. 해야 할 일이 많으면 계획부터 세우는 편이다.	.76	.70	
		36. 어려운 일에 직면할 경우 그 일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80	.76	
		37. 나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한다	.79	.73	
		38.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83	.70	

* 1번~13번 까지의 충동억제문항은 모두 record 되었음

3.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유목화 :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

예비조사와 문항추출과정을 거쳐 수정된 척도 30문항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척도의 요인을 유목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젠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직교회전(varimax)방식에 의해 회전시킨 결과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대한 항목은 예상했던 대로 충동억제, 만족지연, 자기확신, 자기관리로 분류되어 모두 4개의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다. 각각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22.46%, 20.53%, 10.37%, 8.88%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4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62.24%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자기관리는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상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사전에 소비와 관련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두 번째 요인인 충동억제는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문항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충동구매를 하는가를 측정한 후 역산하여 충동억제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로 소비행위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동구매 후 겪게 되는 갈등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인인 자기확신은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신념을 얼마나 소비행동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의

<표 5> 요인분석결과

	요인1: 자기관리	요인2: 충동억제	요인3: 자기확신	요인4: 만족지연	h ²	Cronbach' α
문항35	0.81	0.09	0.11	0.11	.693	.933
문항30	0.80	0.03	0.24	0.09	.705	
문항34	0.77	0.02	0.15	0.23	.659	
문항36	0.75	0.11	0.23	0.11	.641	
문항28	0.74	0.02	0.32	0.13	.659	
문항29	0.71	0.14	0.23	0.20	.620	
문항37	0.70	-0.05	0.19	0.13	.544	
문항26	0.64	0.01	0.38	0.11	.572	
문항38	0.64	0.14	0.20	0.35	.583	
문항32	0.63	0.10	0.31	0.29	.582	
문항33	0.60	0.03	0.24	0.38	.567	
문항 9	0.07	0.86	0.08	0.03	.748	.928
문항 8	0.08	0.85	0.11	0.06	.740	
문항 2	0.17	0.81	0.05	0.01	.687	
문항 6	0.03	0.81	0.06	0.00	.654	
문항10	0.07	0.80	-0.03	0.09	.656	
문항 4	0.09	0.78	-0.06	0.01	.614	
문항 3	0.08	0.77	-0.13	0.00	.610	
문항12	-0.05	0.75	-0.01	0.05	.561	
문항13	-0.07	0.70	-0.12	0.08	.522	
문항 7	-0.01	0.66	0.06	-0.11	.446	
문항23	0.38	-0.04	0.70	0.19	.679	.862
문항21	0.39	0.06	0.69	0.14	.648	
문항24	0.39	-0.05	0.67	0.19	.647	
문항19	0.41	0.00	0.66	0.18	.641	
문항20	0.37	-0.02	0.65	0.13	.567	
문항14	0.16	0.02	0.17	0.80	.697	.784
문항16	0.29	0.02	0.11	0.75	.653	
문항15	0.29	0.09	0.18	0.68	.588	
문항17	0.40	0.00	0.16	0.55	.493	
아이젠값	6.74	6.15	3.11	2.66	총변량=62.24%	
전체변량(%)	22.46	20.53	10.37	8.88		

사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영향력에 지배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능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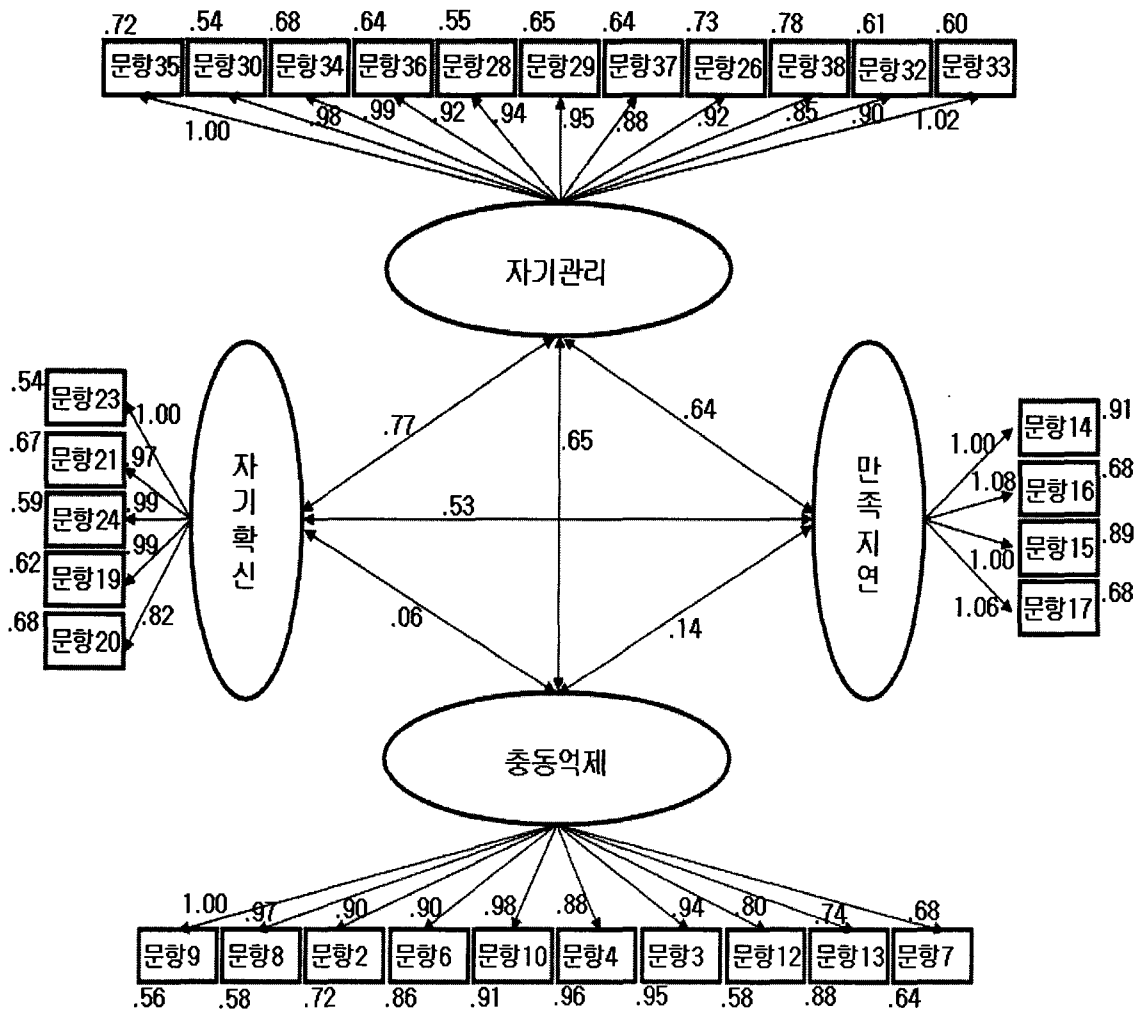
네 번째 요인인 만족지연은 모두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좀 더 좋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고 내면화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주로 소비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의 즉각적인 욕구나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각의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요인 1인 자기관리가 .933, 요인 2인 충동억제가 .928, 요인 3인 자기확신이 .862, 요인 4인 만족지연이 .784로 비교적 매우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4. 구성타당도 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은 요인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5.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특정 가설을 설정하고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인 결과를 가지고 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개의 문항이 4개의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구성요인을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을 해당되는 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하였으며 오차들 간에는 모두 상관관계가 없고, 4개의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구조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확인된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부합지수(GFI=Goodness-of-fit Index), 조정부합지수(AGFI=Adjusted GFI), 원소잔차 평균차이(RMR=Root Mean Square Residual), 표준적합지수(NFI=Normed Fit Index) 등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기준부합지수를 충족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5. 요인들 간의 평균값 비교

위에서 추출된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ment designs)을 이용한 GLM을 사용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반복측정은 동일한 피험자들을 상이한 처치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다음 처치조건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처치조건 간에 존재하는 오차 중에서 개인차에 따른 오차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때문에 처치집단 간의 차이를 처치효과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변찬진·문수백, 1999).

<표 7>과 같이 각 요인의 평균값은 충동억제가 4.6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기확신이 4.50, 그리고 만족지연과 자기관리는 4.40로 나타났다.

<표 6> 확인된 요인구조 모형에 대한 부합지수

	χ^2	df	GFI	AGFI	RMR	NFI
자기조절 모형부합지수	2263.18	399	.91	.89	.06	.89
기준부합지수*	-	-	.90이상	.90이상	.05이하	.90이상

* 출처 : 김계수(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표 7>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척도의 각 영역별 평균

변인		평균(S.D)	F값
자기 통제	충동억제	나는 종종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산다.	4.78(1.41)
		나는 상품을 보자마다 사는 것을 결심한다.	4.86(1.44)
		마음에 들면 일단 물건부터 사고 본다	4.95(1.47)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구매 할 때가 있다.	4.35(1.46)
		때때로 내가 산 물건이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4.09(1.40)
		나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물건을 산다.	4.65(1.43)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4.89(1.46)
		사람들이 나에게 충동적이고 말 할 때가 있다.	4.88(1.55)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재미있거나 흥미로워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4.31(1.45)
	나는 안전보다는 모험과 흥미로운 것에 관심이 더 많다.	4.58(1.44)	
만족지연	나는 구매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더 즐겁다	4.20(1.32)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구매를 포기할 수 있다.	4.53(1.30)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4.39(1.36)	
	정기적으로 저축 한다	4.51(1.46)	
자기확신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4.37(1.20)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4.56(1.12)	
	모든 부분이 확실할 때 의사결정을 내린다	4.52(1.21)	
	내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 결과에 자신이 있다.	4.26(1.18)	
자기감독	자기관리	내가 한번 결정한 일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확신한다.	4.34(1.19)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행동하는 편이다	4.49(1.23)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계획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편이다	4.55(1.20)
		구매해야 할 물건이 있을 경우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 편이다	4.48(1.25)
		일을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4.56(1.24)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 한다	4.64(1.16)
		나는 돈을 쓰는 데에 나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4.45(1.27)
		나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이다	4.38(1.30)
		해야 할 일이 많으면 계획부터 세우는 편이다.	4.55(1.31)
		어려운 일에 직면할 경우 그 일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64(1.22)
나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한다	4.36(1.26)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4.40(1.28)		

* 충동억제의 10개의 문항은 모두 record 되었음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자신이 보다 주체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 과정의 전 단계를 합리적으로 조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도(Self-Regulation Scale in Consumption : SRSC)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구성요인이 크게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으로는 충동억제와 만족지연, 그리고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확신과 자기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성과로는 아직까지 소비자학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못했던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기조절의 구성요인으로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학에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의 개념을 단순히 구매에 대한 욕구를 통제한다는 충동억제의 개념이나 검약과 절약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패턴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소비생활에 대해 계획을 세워 점검하며 스스로의 구매욕구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력을 통해 소비자는 지속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소비에 대한 요구를 스스로 조절하여 외적조건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각자의 삶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소비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의 생산방식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욕망을 리드하고 창조하며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내서 빨리 적응해 가는 기술개발과 생산시스템을 만드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삶에서 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품에 예속되는 경향이 빈번해 지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에서 발생하는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소비의 보상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여 소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을 통한 자기조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과 척도의 체계화는 소비자의 자기결정성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극도로 복잡한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소비주권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비자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작업이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한 보다 정교한 개념에 대

한 정리와 척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리서치를 활용함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응답이 원천적으로 제외된 점들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척도의 보완과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기조절력을 통한 소비자들의 주체성 확립과 각자의 삶의 목표를 향한 소비생활이 과연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만족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상적으로 자기조절은 지속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소비에 대한 요구를 스스로 조절하여 외적조건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의 만족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조절력과 소비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기조절 척도가 다양한 연구대상과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본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척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개념의 체계화와 척도개발의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둘러싸여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복잡해진 산업사회에서 잃어버렸던 소비주권을 다시 찾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지향적이고 사회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소비자들의 삶을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조절에 의한 소비만족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도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9월 15일

【참 고 문 헌】

- 강기숙·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3(2), 1-17.

- 구미옥(1992). 당뇨병 환자의 자기간호 행위와 대사조절에 관한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 김두섭 ·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승규(2005). 소비자 자기조절 모형과 충동구매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6(3), 61-77.
- 남승규(2005). 자기조절모형, 소비자 및 광고. *광고학연구*, 16(5), 145-157.
- 리대룡 · 이상빈 · 박현진(1997). 구매충동의 조작화와 특성. *광고연구*, 34, 213-237.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박명희(2006). 지속 가능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안 탐색 연구. *소비문화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박영임(1994).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자기간호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창진 · 문수백(2000).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실험설계 · 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신민희(1998). 자기조절 학습이론: 의미, 구성요소, 설계원리. *교육공학연구*, 14(1), 143-162.
- 양옥승(1993). 유아교육과정 연구의 개념화II: Vygotsky의 발생학적 인식론 활용. *유아교육연구*, 13, 95-113.
- 양옥승(1994). 언어적 계획 및 평가(VPE)프로그램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14(2), 57-77.
- 양윤 · 이채희(2000).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1(2), 137-168.
- 이정란 · 양옥승(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홍기철(1994). 자기조절 기능의 발달수준에 따른 컴퓨터 본위 수업의 통제방략이 학습과 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lan, T. D.(1991). *How much is Enough?*. 구자건 옮김(1994). *소비사회의 극복*. 도서출판 따님.
- Ames, C. & Archer, J.(1988). Achievement goals o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al pro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67.
- Bagozzi, R. P., Baumgartner, H. & Yi, Y.(1992).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 application to coupon us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march), 505-518.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Betliner, D. C. & Calfee, R. C.(1996). *Action control*. in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Macmillan: NY.
- Bodrova, E. & Leong, D. J.(1996). *Tools of mind: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nson, J.(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Press.
- Brownell, C., Etheridge, W. & Hugerford, A.(1997). Socialization of self-regulati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ver age and contex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n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Byrness, J. P.(1998).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decision-making: a self-regulation model*. Hildale, N.J.: Erlbaum.
- Chapple, C. L.(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 Costello, B. J., Anderson, B. J. & Stein, M. D.(2006).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dolescents: a test of hypotheses derived from control theory. *Journal of Alcohol & Drug Education*, 50(1), 35-33.
- Csikszentmihalyi, M.(2000). The costs and benefits of consum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267-272.
- Diaz, R., Neal, C. & Williams, M.(1990). The social origins of self-regulation. *Vygotsky and education: instruction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of sociohistorical psychology*. In L. C. Moll(Ed.), 127-154.
- Fang, Z. & Cos, B.(1999). Emergent metacognition: A study of preschooler's literate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3, 175-185.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cia, T. & Pinttich, P. R.(1994). "Regulation motivation and cognition on the classroom: the role of self-schema and self-regulatory strategies", In D. H. Shunk & B. J. Zimmerman(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ch, S. J., Loewenstein, G. F.(1991). Time-inconsistent

- preference and consumer self-contro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March), 492-507.
- Humphrey, C. C.(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 on children's self-control: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Jones, P.(1989). Use of a course on self-control behavior techniques to increase adherence to prescribed frequency for self-monitoring bloodglucose. *The Diabetic Educator*, 16(4), 296-303.
- Kanfer, F. H. & Gaelick-Buys, L.(1991). Self-management methods, In F. H. Kanfer, A. Goldstein(Eds). *Helping people change-A textbook of methods*, 4th(305-360). New York: Allyn and Bacon, Needham Heights.
- Kanfer, F. H.(1973). Self-control: Factors enhancing tolerance of noxious stim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381-389.
- Kanfer, F. H. & Karoly, P.(1972). Self-regulation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some additional conceptualization In R. C. Johnson. P. R. Dokecki. & O. H. Mowrer(Eds). *Socialization: Development of character and conscience*(428-437)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im, S. Y., Murry, V. M. & Brody, G. H.(2001).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pplication of second-order growth curve mode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 Kochanska, G., Murray, K., Jacques, T. Y., Koenig, A. L. & Vandegest, K. A.(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 Kokanska, G., Clark, L. A. & Goldman, M. S.(1997). Implic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for their parenting of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65, 387-420.
- Kopp, C. B.(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uhl, J.(1981). "Volitional mediator of cognition behavior consistency: self-regulatory processes and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Action control : from cognition to behavior*, ed. Julius Kuhl and Jeurgen Beckman, 101-128, New York: Springer.
- Leventhal, H., & Norenz, D. R. & Steele, D. J.(1984). Illness representations and copings with health threats, In A. Baum, S. E. Taylor, J. E. Singed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vol.IV)*, 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health(219-252). Hillsdale, H.J.: Lawrence Erlbaum.
- Mahoney, J. M.(1974). Self reward and self monitoring techniques for weight control. *Behavior Therapy*, 5, 48-57.
- Miller, R. B., Behrens, J. T., Greede, B. A. & Newman, D.(1993). Goals and perceived ability: impact on student valuing,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8, 2-14,
- Mischel, H. N. & Mischel, W.(1983).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Perry, N. E.(2001).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16, 26-29.
- Pintrich, P. R., Smith, D.A.F., Garcia, T. & Mckeachie, W. J.(1993).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 801-813.
- Piron, F.(1991). Defining impulse purchas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 509-514.
- Raver, C. C., Blackburn, E. K., Bancroft, M. & Trop, N.(1999). relations between effective emotional self-regulation, attentional control, and low-incom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33-350.
- Rook, D. W., Fisher, R. J.(1995). Normative influences on impulsive buy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December), 305-313.
- Rosenbaum, M.(1990). *Learned resourcefulness on coping skills, self-control and adaptive behavior*. Springer Publication Company.
- Sethi, A., Mischel, W., Aber, J. L. & Shoda, Y., & Rodriguez, M. L.(2000). The role of 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 in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edicting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from mother-toddler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67-777.

- Shiri, S., Christine, C. & Laura, H. G.(2000). High and low perceived self-control of epileptic seizures, *Epilepsia*, 42(2), 556-564.
- Shunk, D. H.(1989).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B. Zimmerman & D. Schunk. (Eds.). *Self-regulati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pringer-Verlag.
- Shunk, D. H. & Zimmerman, B. J.(1994).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s: issue and educational application*. Hillsdale, N. J.: Erlbaum.
- Tittle, C. R., Ward, D. A. & Grasmick, H. G.(2004). Capacity for self-control and individuals's interest in exercising self-control.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0(2), 143-172.
- Vazsonyi, A. T., Pickering, L. E., Junger, M. & Hessing, D.(2001). An empirical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A four-nation comparative study of self-control and the prediction of devi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38(2), 91-131.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Harvard Press.
- Weinert, F.(1983). Self-regulated learning as an instructional prerequisite, method and objective. *Education*, 28, 117-128.
- Weinstein, C. E., Schulte, A. and Palmer, D.(1987). *LASSI: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inventory*, Clearwater. Fla: H & H.
- Wing, R. R., Epstein, L. H., Nowalk, M. P. & Lamparski, D. M.(1986). Behavioral self-regulation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diabetic mealtimes. *Psychological Bulletin*, 99(1), 78-89.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614-628.